

4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나스닥 2.6%↑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음. 실업수당과 제조업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들였음. 여기에서 JP모간체이스가 기대이상의 1분기 실적을 내놓은데다, 신규 상장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이 폭등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음.
미 1분기 주택차압 `사상최대`..`바닥 안왔다`	미국의 주택차압 사태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로 실업 사태가 악화되는데다 정부의 임시 지원 프로그램마저 종료되면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美정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내달 4일 발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공개할 예정. 이어 내달 4일 은행들의 성적표와 함께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비한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 개별 은행들이 직접 성적표를 공개할 것인지, 금융당국이 발표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美 실업수당 청구 `예상밖 감소	미 노동부는 16일(현지시간) 지난주(11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5만3,000건이 감소한 61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같은 규모는 지난 1월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66만건을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하회했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8,500명 감소한 65만 1,000명을 기록했음.
JP모간, 30억달러 채권 발행 성공	자산 기준으로 미국 2위 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30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JP모간이 정부의 지원 없이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 8월14일 이후 처음. 이날 JP모간이 발행한 만기 2019년 달러화 채권의 발행 금리는 미국 국채 대비 3.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음.
유럽 주요 증시 다시 상승 반전	16일 유럽 주요 증시가 노키아 등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하락 하루만에 다시 상승. JP모간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힘입어 크레디트스위스 그룹과 도이치방크가 5% 이상 올랐고 바클레이즈는 8.2% 급등. 또 세계 최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이익 전망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8.9% 상승, 3개월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음.

제목	주요 내용
유럽, 3월 신차판매 9%↓..둔화폭 감소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EAMA)는 이날 지난 2월 유럽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51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1월 27% 급락하고, 2월에 18% 하락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프랑스 정부 등이 신차 구매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
원자바오 "中 경제, 기대 이상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6일 "중국 경제가 기대한 것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 원 총리는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 뒤 "중국 정부의 부양 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평가.
日 NEC-르네사스 합병, 반도체업계 재구성 '방아쇠'	일본 반도체 2, 3위 업체인 르네사스테크놀로지와 NEC전자의 합병이 경쟁사인 도시바와 후지츠의 전략수정은 물론 새로운 합종연횡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17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 실제로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은 도시바와 후지츠 그룹의 기존 반도체 사업전략을 무산시킬.
윤증현 "4월에 실업자 100만명 넘을 것"	윤 장관은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강연에서 "3월 실업자가 95만2,000명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4%에 진입하는 등 실업자 100만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세계경제 위기 아래서 비관적·낙관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며 "어느쪽으로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평채 30억달러 발행으로 외환시장 위기설은 가라앉았지만 부진한 고용지표 및 금융기관 부실 등 악재가 혼조돼 있다는 설명.
장밋빛은 없다..정부를 수출전망 -14%로 하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진흥 대책'을 보고했음. 우선 올해 수출 전망을 현실적으로 대폭 낮췄다는 점이 눈에 띈. 당초 정부의 수출 전망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267억 달러였지만, 이를 13.5% 감소한 3,650억달러로 낮춰 잡았음. 수입 전망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4,148억달러에서 20.7% 감소한 3,475억달러로 하향조정.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 수준으로 예상.
GM대우, 작년 11월 정부 첫 접촉..`버틸만큼 버텨왔다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청와대를 방문, 긴급 자금 지원요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장 일각에서는 GM대우의 유동성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GM대우 한 관계자는 "이달 중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에서 언제 자금지원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中·유럽시장, 현대차 판매 `가속도`	현대자동차가 최악의 업계 불황속에서도 지난 1분기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에서 승승장구. 특히 지난달 유럽시장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판매실적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음. 이에 따라 현대차의 2월말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같은 달 3.5%보다 1% 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